# 통도사, 빛과 예술로 피어나다

**9월 28일, 미디어아트 개막**
**10월 18일까지 야간 순례**
**스카이 홀로그램 등 선보여**
**"수행자 자세 배우는 계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 통도사'가 9월 28일 해장보각 앞 무대에서 개막해 10월 18일까지 21일간의 특별한 야간 순례 일정에 돌입했다. 메인 쇼 '마음의 꽃'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우담바라가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의 1381년 역사가 최첨단 미디어아트와 만나 찬란한 빛으로 피어났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양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통도사가 주관하는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양산 통도사'가 9월 28일 해장보각 앞 무대에서 개막해 10월 18일까지 21일간의 특별한 야간 순례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통도, 고요에 이르다'이다. 영축총림문 '시작의 문'을 통과해 성보박물관, 월영교 하천, 삼층석탑 주변 연못, 불이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7개의 상시 운영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들어서다, 바라보다, 스며들다, 피어나다'라는 네 가지 테마를 따라 걸으며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내면의 평안을 마주하게 된다.

개막식에는 통도사 총무국장 진응 스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 이길배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을 비롯해 사부대중이 참석해 산사의 밤을 밝히는 빛의 향연을 축하했다.

개막식 현장은 천년 고찰의 장엄함과 빛의 예술이 빚어내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했다.

백미는 해장보각 앞 무대에서 처음 공개된 메인 쇼 '마음의 꽃' 시연이다.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전설 속 우담바라가 프로젝션 맵핑과 스카이 홀로그램을 통해 밤하늘에 피어났다. 거대한 연꽃과 부처님의 형상으로 만개하는 장엄한 연출에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빛의 향연에 빠져들었다. 여기에 무용수 최수진 씨의 퍼포먼스가 더해지며 가을밤 산사의 정취를 전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사부대중은 영축총림문에서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을 따라 직접 걸으며 빛으로 깨어난 통도사의 밤을 만끽했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대신해 단상에 오른 총무국장 진응 스님은 〈금강경〉 사구게 중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을 인용하며 미디어아트가 지닌 깊은 불교적 의미를 전했다.

진응 스님은 "이 화려한 빛의 향연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꿈속 같고 물거품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게 된다"며 "이번 행사를 단순한 놀이나 전시가 아니라 찰나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뜻깊은 행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양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통도사가 첨단 기술과 만나 도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축하를 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통도사 미디어아트가 양산의 대표 문화 행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부처님의 정신을 빛으로 담아내는 이 소중한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일배 양산시의회 의장은 "가을밤의 고요함이 통도사의 깊은 역사와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라며 "통도사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듯 오늘 밤 화려한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가을밤 산사가 건네는 고요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미디어아트 행사는 10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원활한 관람을 위해 입장 마감은 오후 8시로 제한되며 산문 주차장과 환타지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부산 불자들, 삼귀의·오계로 새 출발

**10월 10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초심자 위한 '법명 작명' 지원 눈길**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에서 수계(受戒)는 악한 일을 멈추고 선한 일을 행하는 기본이 되며, 어둠 속의 등불이자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자비의 나룻배로 비유된다. 이번 법회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자기완성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계대법회는 부산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덕 스님들이 증명법사로 나서 법석의 의미를 더한다. 전계대화상 선응 지현 대율사(관음사 회주)를 비롯해 갈마아사리 심산 법미 대율사(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 효명 대율사(혜원정사 회주)가 3사(三師)를 맡아 청정 계율을 내린다. 아울러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해 도일·하림·지일·정관·덕림·성광 율사 등 7명의 스님이 존증아사리로 등단해 수계 제자들의 맹세를 증명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연합회 사무국으로 개별 접수하는 불자들에게는 전화 상담을 통해 법명 작명을 지원하고 있다. 사찰에서 단체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사찰의 주지 스님이 작명을 완료한 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수계 동참비는 1인 5만원이며, 참석자는 흰색 상의와 편안한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9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검색하면 라이브 생중계로 동참할 수 있다.

수계 접수 및 행사 관련 문의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051-501-7554)으로 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제8회 영축문학상 수상작 발표


유영희 시인


최성배 소설가


이석락 시인

**대상에 유영희 시인 '그릇 닦기'**
**10월 11일 통도사서 시상식**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학회(회장 정영자)가 제8회 영축문학상 대상에 유영희 시인의 시 '그릇 닦기'를 선정했다.

영축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본심을 열고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작 5편을 확정해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은 유영희 시인의 '그릇 닦기'에 대해 "배고팠던 어머니의 어머니가 끼니를 걱정하는 소리가 담긴 그릇이, 비우고 깊어지는 지혜와 더불어 마음과 우주를 담는 그릇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시적 상상력으로 잘 그려낸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유영희 시인은 2007년 '수필과비평' 2024년 '시와 편견'으로 등단했으며 통영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영축문학상에는 최성배 소설가의 '떠도는 그 눈빛'(소설)과 이석락 시인의 '한계선 아래 나부끼는 곡두'(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최성배 소설가는 1986년 '동춘문학'으로 등단해 다수의 장편소설과 소설집을 출간했으며, 이석락 시인은 2005년 '자유문예' 등으로 등단해 활발한 문단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축문학작가상에는 문도경 수필가의 '메밀꽃 속에 너의 얼굴이'(수필)와 이명주 수필가의 '한 그릇의 공양, 한 그릇의 수행'(수필)이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서류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제8회 영축시낭송상 수상자로는 2021년 '영남문학'으로 등단한 조아랑 시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영자 회장의 인사말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의 축사를 비롯해 물소리시극단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몽골에 희망을 심다




**창원 성주사 · 한가람재단**
**9월 13일, 2만달러 기부**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와 한가람문화재단이 몽골 기후난민 아동과 농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주사와 한가람문화재단은 9월 13일 몽골 바양항가이 솜(Som·郡)을 찾아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비타민나무 숲 조성기금 2만달러(약 2800만원)를 기부하고 농촌마을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창원 성주사와 서울 금선사 불자들의 정성에 창원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의 후원이 더해져 마련됐다.

행사에는 법안 스님과 성주사 불자들을 비롯해 몽골 현지 어린이와 주민, 나눔을 주선한 푸른아시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법안 스님은 "나눔의 마음이 몽골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화엄행자들의 수행 의미도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오늘 우리가 심은 비타민나무가 잘 자라 어린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꽃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주사와 한가람문화재단은 2022년 스리랑카 자립연수원 건립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 전쟁난민 쌀 지원, 라오스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북베트남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식당 보수 등 해외 자비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제36회 산해원문화상 후보자 공모

**문학·예술·언론·봉사 4개 부문**
**20년 이상 경력…10월 30일까지**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가 지역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제36회 산해원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산해원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 공헌에 힘써온 인물의 공적을 기리고 그 뜻과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문학상 △예술상 △언론·학술상 △행원상(사회모범·봉사) 등 4개 부문에서 후보자를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2026년 9월 1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전문 활동 경력을 갖춘 향토문학가, 문화예술인, 언론인, 학계 인사, 자원봉사자 등이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언론 부문은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 부문별 창작지원금 7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추천서와 공적조서, 주요 경력 및 수상·작품 관련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우편(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오피스텔 1401호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또는 이메일(chbg2112@daum.net)로 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 15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2시 창원 정법사 만불보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010-5246-2112 성낙두 경남지사장

# 다문화가족과 '중추절 달빛축제'

**양산 해원사, 9월 26일 개최**



양산 베트남사원 해원사(주지 틱느쩐프엉 스님)는 9월 26일 '중추절 달빛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한국 내 베트남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부모 세대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가족·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지 틱느쩐프엉 스님은 "중추절 축제가 어린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다문화 어린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공간인 '연꽃봉오리의 집'도 소개됐다. '연꽃봉오리의 집'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이날 노래와 춤, 시낭송, 퀴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또 연등을 들고 행렬에 함께하고 선물과 베트남 전통음식 등을 나누며 즐거운 중추절 추억을 만들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남해 용문사, 어르신 초청 템플스테이

**고현노인대학 40명 초청**
**불교문화 체험 및 공양**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사는 9월 22일 봉서루에서 고현면 노인대학 어르신 40여 명을 초청해 '템플스테이 체험 및 대중공양'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승원 스님과 류경완 남해군수, 김창우 경남도의원, 정진규·박삼준 남해군의원, 정세곤 고현면 노인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승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2023년부터 남해 곳곳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지역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들은 용문사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정을 나누고, 경내를 둘러보면서 사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살펴보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동명불원 '가을밤 산사음악회'

**9월 18일, '음악으로 마음 잇다'**




깊어가는 가을밤 부산 동명불원이 음악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마음을 잇는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동명불원(원장 마가 스님)은 9월 1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9회 가을밤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비룡산 가을밤, 음악으로 마음을 잇고 정으로 사람을 잇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산사의 정취와 대중음악, 불교문화가 어우러지며 시민들에게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지역 주민은 물론 부산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음악과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나누는 문화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내년 동명불원 창건 50주년을 앞두고 열려 의미를 더했다.

동명불원 원장 마가 스님은 '꽃'을 화두로 서로에게 먼저 웃음을 건네는 마음을 강조했다. 마가 스님은 "이만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괜찮아"라며 꽃을 들고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난다"며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꽃이 핍니다"라고 간결하고 의미 있는 인사말을 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